

갈등관리 워크숍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회의한 적이 없는데 오늘 회의가 가장 다양하고 성황을 이룬 것 같습니다. 토론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각별히 큰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적 대응까지 겹쳐 갈등과 대립이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낭비와 손실이 초래돼 마침내 사회적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결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늘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거나 물리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시와 통제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갈등을 대화와 타협, 거기에 기초해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가동시켜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갈등 해결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21세기는 단지 국민주권의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는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권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분산된 권력사이에서 적당한 타협과 합의가 이뤄지는 체제입니다. 갈등 해소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선의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술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 관리는 민주주의, 관용 등의 사상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토대위에서 갈등을 잘 관리하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기술적 지혜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도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갈등관리)을 참여정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혼자 끌고 갈수 없다는데 고민입니다.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